

2014
12

이달의 주요뉴스

세계 15개국 언론 관계자 참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4년도 경남토론회 개최

특별기고

창조경제의 길; 실크로드와 한류로드

언론 사람

제174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 03 **이달의 주요뉴스** 세계 15개국 언론 관계자 참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4년도 경남토론회 개최
- 04 **특별기고** 창조경제의 길; 실크로드와 한류로드
- 06 **위원단상** 참새의 잡념
- 07 **내 안의 인문학** 설명을 넘어 감동으로, 창조적 그림보기
- 08 **컨퍼런스 중계**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에 해외 언론관계자 이목 집중
- 10 **신 동의보감** 갑상선
- 11 **직원마당** 삶과 여행의 불안에 관하여
- 12 **교육후기** 알고 보니 비타민 같은 일
- 13 **위원동정 · 위원회 소식**
-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발행인 박웅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4년 12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 디자인 (주)앙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pac.or.kr
- 모바일웹 m.pac.or.kr
- 조정중재아카데미 edu.pac.or.kr



언론파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 · 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 · 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 · 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
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
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
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뉴스 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
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 · 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
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15개국 언론 관계자 참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서울 플라자호텔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의 새로운 지평(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는 세계 15개국의 언론인과 법조계, 학계, 언론 평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범죄보도와 자살보도, 재난보도 문제를 다뤘다.

제2세션에서는 ‘세계의 언론피해구제제도와 ADR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관련 제도를, 제3세션에서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이슈들’이라는 주제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이슈에 대해 토론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국제컨퍼런스 환영 리셉션을 진행했다. 이 날 리셉션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전·현직 위원장, 국내외 언론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상세내용 8~9면 참조).



2014년도 경남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1월 27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경남지역 언론인 및 주요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경남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의 양상과 특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에는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서도 뉴스공급 및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피해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피해 형태에 걸맞은 언론피해구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언론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주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언론활동에서 소외된 대중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액세스권’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최근 5년간 경남중재부에서 처리된 조정중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인구 대비 사건수로 보면 경남이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경남중재부 중재부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남부희 경남중재부 중재위원, 정오복 경남신문 사회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창조경제의 길; 실크로드와 한류로드



최광식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머리말

우리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비단을 비롯한 많은 문물과 다양한 종교 및 문화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초원로를 통하여 청동기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샤머니즘은 이 때 북방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사상은 한사군시기 한반도에 전래 수용되어 지금까지 한국인의 가치지향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간다라지방을 거쳐 천산남로를 통해 서역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무속신앙, 유교사상, 불교문화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여 왔으며 토착화되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실크로드를 통하여 받아들여 우리 문화 체질 위에 이를 변용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제 한국문화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한국은 문화수입국에서 문화수출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되었다는 것과 함께 의미가 큰 것이다. 실크로드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 길이었다면, 한국 문화를 세계로 내보내는 길을 한류로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실크로드와 한류로드를 통해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여 창조적인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실크로드와 고대문화

‘실크로드(Silk road)’는 말 그대로 무역을 통해 비단이 이동한 길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은 교역품이나 선물로 주위의 여러 나라에 전해졌다. 비단은 직물로서는 최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화려한 의상의 재료였을 뿐 아니라 국가나 개인 간의 증여품이나 돈을 대신하는 지불수단으로까지 사용되었고, 서방 세계에서도 귀하게 취급되었다. 실크로드의 기본적 기능은 오아시스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대상무

역에 의한 교역루트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역을 통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의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문화의 전파와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실크로드는 ‘문명 교류’의 대명사로서 보다 넓은 문화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실크로드가 문명사적 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불교문화의 유입이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남북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 영향을 주었고, 조선시대에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적, 문화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신라 미술이 북방 또는 서역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신라 미술의 여러 특징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북방과 관련해서는 기원전 7세기 경 출현한 유목민족인 스키타이 문화가 일찍부터 주목되었는데, 스키타이 미술의 특징은 동물문양이다.

한편 신라 미술에는 서역의 색채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삼국시대 신라 고분의 부장품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리제품과 금속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 초기의 조각은 삼국시대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국의 최신 경향을 받아들이고 소화해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신라의 조각 중에 서역적 요소가 반영된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신라 미술에 보이는 서역적 혹은 인도적 요소가 서역을 통해 직접 전래된 것이든, 아니면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든 간에, 신라와 서역·인도 사이의 직·간접적 교류관계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일찍부터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은 이 부분이 고대 문화의 원류와 문화 간 융화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앞에서 우리는 동·서 문명교류의 대명사로서 ‘실크로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 교류의 실상을 역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가 고대로부터 중국을 포함해 서역, 그리고 서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문화의 특징은 단순히 설명할 수 없으며, 한국문화는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흔히 한국문화의 특징을 검소함이나 소박한 멋 등으로 표현하지만, 고려불화를 보면 화려함과 우아함 또한 한국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검소함과 소박함은 조선시대 문화의 특징인데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의 것을 우리 전통문화 전체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한국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곧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각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전통문화의 특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문화는 실크로드를 통해 외래문화와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 융합해왔다. 불교문화나 유교문화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고유의 것과 융합시키면서 창조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과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그러하고, 조선시대의 성리학 발달과 양반문화가 또한 그러하다. 유교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상을 집요하게 추구하였고 또 심화된 사상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유교적 생활문화를 준수하고자 하여 중국보다도 더욱 깊이 있는 철학과 생활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큰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이들 종교는 각각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의 존재 양태는 다양성과 개방성, 뛰어난 흡수력과 조화로움이 바로 한국문화의 특징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맺음말

전근대에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의 여러 나라, 여러 문명과 교류했듯이, 현대에는 한류로드를 통해 다른 나라와 끊임없는 문화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한국의 전

통 문화, 순수문화예술을 보고 듣고 즐기면서 공감하고,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즐기는 쌍방향 교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한류 3.0시대의 진정한 목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한국문화의 특징을 잘 알고 의미를 부여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 사람들이 한류를 즐기듯이 우리도 다른 문화를 관람하고 체험해야 할 것이다. 한류라는 명주실을 통해 우리는 전통문화 한류, 스포츠 한류, 관광 한류, 콘텐츠 한류 등 온갖 진귀한 구슬을 하나로 꿰 멋진 목걸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서역 및 서양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더욱 새롭게 발전시켰듯이 상호교류의 열린 자세와 융복합적인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견지한다면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쌍방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문화를 존중하고 더욱 발전시켜 인류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민간 합동으로 발족한 한류3.0위원회가 여러 장르의 한류 현상에 대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장르들을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보도록 논의구조를 만들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상승효과를 거두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으로 연결시켜나간다면 한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필자 소개

- ▷ 고려대 사학과, 동 대학원 졸업(한국고대사학 석·박사)
- ▷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문화재청 청장
- ▷ 제46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임

주요 저서

-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한국 무역의 역사》,
-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 《한류로드-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 등





참새의 잡념



송 정 훈 위원
서울제4중재부
변호사

朝聞道 夕死可矣(조문도 석사가의)

공자께서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 말년에 도덕이 땅에 떨어진 노나라를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자 사후 수많은 사람이 공자 말씀을 인생의 가르침으로 살아왔지만,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었다는 얘기를 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아침에 도를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아침에 도를 들었으나 세상이 변해 아침에 들은 도가 저녁에는 도로 남아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儉以養德(검이양덕)

제갈공명은 계자서에서 ‘儉以養德(검이양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선비들은 혼인을 축하하면서 ‘多壽 多子 多福(다수 다자 다복)’을 기원하였습니다. 많이 낳고 적게 쓰는 것이 옳았었습니다.

“하루위해 낭비말고 백년위해 저축하자”

1979년 표어입니다. 1970년대에는 국가경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했었습니다.

“축복 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1980년대 표어입니다. 1980년대까지 인구증가를 경제성상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산아를 제한했었습니다.

“소비침체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작금에 정부의 인식입니다.

정부는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정작 소비자들이 경제상황인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1994년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장려 표어입니다. 저출산이 한국인을 멸종시킬 수 있다는 가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을 알게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전에 변하는 것을 알면 도를 들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덜 낳고 덜 쓰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제 자식들이 결혼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많이 낳고 많이 쓰는 것이 옳은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 손자가 결혼할 때에는 많이 낳고 적게 쓰는 것이, 또는 적게 낳고 많이 쓰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노자께서 지금 한국에 사신다면 무엇이랴 말씀하실지, 아직 산아제한정책이 남아 있는 중국에 사신다면 무엇이랴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노자께서도 모르실 겁니다.

道(도)

可道(가도)

非常道(비상도)

설명을 넘어 감동으로, 창조적 그림보기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말로는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변화와 혁신이다. 우리는 이미 무언가에 익숙해졌고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던 길을 그대로 가려하고 새로운 길을 가거나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늘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의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섦도 문제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사람을 만나고 먹어본 음식을 선호한다. 여행지에서 만난 그 지역의 새로운 음식은 먹어보기도 전에 혹시 입에 맞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그 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피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낯선 곳으로의 여행도 마다한다. 하긴 우리에게 편함이란 곧 익숙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보아도 아는 그림만 본다. 그래서 그런지 인상파와 후기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전이 열릴 때면 그 어느 때고 인산인해를 이룬다. 왜일까. 아마도 그것은 편하고 익숙한 것이 마음 쓰고 생각할 일이 적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편하고 익숙한 그림을 선호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림을 보는 것, 현대미술을 감상한다는 것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물론 그렇다. 현대미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 세상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고 그것을 표현한다. 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 아니면 눈에 띄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롭게 보기도 한다. 아니 발견에 가까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내부에서 반응하고 생각하고 이를 정리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즉 변화와 혁신에 대해 면역성을 갖게 하는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이 그림을 보는 이유이자 음악을 듣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상파에 고흐나 피카소에 열광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림을 암기과목 공부를 하듯 본다. 작가의 이름과 생몰연도, 비평서에 있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명제표에 들어있는 정보를 외우고 그것을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이는 감상이 아니다. 감상의 본질은 감동과 감명에 있으며 이는 설명을 초월한 경지이다. 그런데 우리의 그림감상은 여전히 설명에 머물러있다. 마음에 파동이 일지 않았다면 진정한 감상이 아니라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림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일, 즉 외우는 일은 감동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 1898~1972)의 판화는 우리가 얼마나 기존의 것에 매몰되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지 또 갑자기 보이는 새로운 것 때문에 얼마나 당황하는지를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부조 속 물고기와 새가 함께 존재하는데, 새를 먼저 본 사람과 물고기를 먼저 발견한 사람은 각각 자신이 먼저 본 것에 확신을 가진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물고기와 새는 공존하고 있다. 무엇을 먼저보고 생각하고 떠 올리느냐, 뒤늦게 눈에 들어온 물고기나 새에 대해 스스로에게 무어라 말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감상의 요체다. 즉 그림을 보는 것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에게 그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감상이 완성되는 것이다. 모네의 <에트르타 절벽의 일몰>(1883년 경)은 일명 코끼리바위라 불리는 절벽을 그린 사실을 알게 되면 일몰보다 익숙한, 알고 있는 코끼리라는 형상으로부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연히 본 바위에서 사람의 얼굴형상을 발견한 이후로 다시는 그 바위로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것도 고정관념, 보이는 것, 아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때문이다.



에셔, Den Haag relief



프랑스 에트르타 코끼리바위



모네, The Cliff, Etretat, Sunset

새로운 문제를 풀거나 같은 문제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아야 실력이 향상된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언제나 같은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혔다고 흥분하고 자랑스러워한다. 또 가끔은 정답(?)을 보고 풀면서 스스로 해결했다고 자랑스러워한다. 언제까지 같은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푸는 복습만 계속할 것인가. 진도를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설명하는 그림보기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 어렵겠지만 감상을 권한다.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에 해외 언론관계자 이목 집중

— 2014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

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



1. 환영사를 하는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 기념사를 하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 축사를 하는 김두현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지난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서울 플라자호텔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14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의 새로운 지평 (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미디어환경 하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하루 앞선 11일 국내외 전문가들을 환영하기 위해 개최된 리셉션에서는 박용상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플립 보예츠 벨기에 언론평의회 전 사무총장, 쉬징 중국 북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두현 전 언론중재위원장의 축사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이어진 만찬에서는 도너 달리아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위원장과 염규호 미국 오리건 주립대 석좌교수가 건배를 제의하며 성공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기원했다.

12일부터 시작된 컨퍼런스는 모두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장은 중국의 재난 보도가 신중국 수립 후 지난 65년간 ‘당 본위’ ‘사건 본위’에서 ‘인간 본위’로 변해 왔다고 발표하면서 점차 인간성 존중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우위보 지사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한국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추측성, 유언비어성 보도 등 공신력 없는 보도가 이어질 경우 재난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1세션의 두 번째 주제인 범죄보도에 관해서는 가타오카 토모유키 일본 변호사가 한·일 양국의 범죄보도 관행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으며 세 번째 주제인 자살보도에 관해서는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가 해당 평의회에서 최근 비윤리적 자살보도로 평결한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언론평의회, 옴부즈맨 등 다양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다룬 2세션에서 정준영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제도”라고 소개하며 “소송 없이도 효과적으로 언론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4. 왼쪽부터 1세션 발제를 맡은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장,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 변호사
5.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지사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무하마드 칸 사프카트 파키스탄 언론평의회 위원장
6. 왼쪽부터 2세션 발제를 맡은 크리스티아나 첼시아 쉐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타르무 타머르크 에스 토니아 공영방송사 옴부즈맨, 정준영 특허법원 부장판사



하여 쉬징 북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중국 언론의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역시 식품안전과 같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한국과 유사한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세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염규호 미국 오리건 주립대 석좌교수는 ‘잊혀질 권리’의 문제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관계자는 미국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왔다는 것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예로 들어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안보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각 나라의 판단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3세션의 또 다른 주제는 일선 기자들에게 항상 고민이 되고 있는 ‘신속성과 정확성, 둘 중 무엇을 외면할 수 있나’였다. 3세션의 발제자인 발라즈 웨이어 헝가리 편집자협회장은 인터넷에 기반한 뉴미디어 시대에 속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다는 전제 하에 신속성은 정확성을 떨어뜨리며 대중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을 위주로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시간 보도’, ‘라이브 뉴스’와 같은 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에 관해 “세계 각국의 언론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컨퍼런스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언론환경과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좋은 기회”였으며 “더불어 한국의 언론 조정중재제도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정리 : 양재규 팀장(연속교육팀)



7. 왼쪽부터 3세션 제1발제자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석좌교수, 사회자 안착히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장, 제2발제자 발라즈 웨이어 헝가리 편집자협회장
8. 3세션 발제자인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석좌교수에게 질문하고 있는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
9.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 참석자들 단체사진
10.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실을 방문한 국제컨퍼런스 참석자들



갑상선

갑상선은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배출한다. 갑상선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알려진 대표적 병증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亢進)증과 기능 저하(低下)증이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대체로 피부가 얇은 편이고, 때로는 산만하고 경솔하기도 하고 신경질적이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을 잘 내고 기분이 좋지 않고 잘 울거나 우울증이 생기곤 한다. 식욕은 증가하지만 체중이 잘 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살 빠지는 체질'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을 한쪽 다리로 서게 했을 때 평형 유지가 불량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때가 많으며, 간혹 근육이 떨린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증상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때론 숨이 차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더운 날씨를 힘들어한다.

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위의 항진증과는 반대의 증상을 갖곤 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모발을 성장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모발이 잘 빠지게 된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모발이 듽성듬성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나 신경성 원인 외에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서 모발이 빠지기도 한다. 대체로 체격이 허리와 복부가 넓고 몸통이 풍부하고 배가 나와 허리와 엉덩이가 구분이 안되곤 한다. 대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움직임이 느리고, 의욕이 없는 편이다. 평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활동적으로 운동을 하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 대체로 느린 편이고 건강증이 잘 생기며, 가끔은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자꾸 둔해지기 때문에 뭔가 배우는 것이 힘들고 주의가 산만해지곤 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환자는 대개 손발이 찬 경우가 많다. 따뜻한 날씨를 무척 좋아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온몸을 두꺼운 옷으로 감싸고도 춥다고 말을 하곤 한다. 피부도 건조하고 살이 트며 잘 벗겨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발꿈치나 손끝이 갈라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로션을 많이 바르곤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 있다. 또 피부가 약하고 모세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멍이 잘 들고 손톱이 잘 부러지기도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될 경우 흔히 그럴 수 있다. 머리카락도 잘 빠지고 수염도 덜 자라며 눈썹의 바깥쪽 1/3 부위도 잘 빠지게 된다. 지방간이 종종 생기게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진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는 대체로 피부가 두껍고 살찐 편이다.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요오드는 주로 다시마나 미역에 많이 들어있는데, 평소 미역국을 자주 먹는 것도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갑상선은 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평소 목 부위를 마사지 하는 것도 훌륭한 갑상선 질환의 예방과 치료법이다. 매일 목 부위 스트레칭과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으로 갑상선의 기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목 부위를 마사지 함으로써 목이 가늘어 보이고 안면의 팔자주름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김태균 의사

그래서 평소 목을 스트레칭하며 마사지 함으로써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을 개선시킬 수 있고, 생기(生氣)가 있게 할 수 있다. 평소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도 갑상선의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데, 노래를 꾸준히 부르게 되면 성대에 혈액순환이 잘되면서 근접하고 있는 갑상선 기능도 덩달아 좋아지게 된다. 평소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굳어진 사람일수록 피로감이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나 비만으로 고생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목 부위에 있는 갑상선이 함께 피로를 느끼는 까닭이다. 한방의 침(鍼)시술과 한약처방으로도 갑상선의 기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혹시 평소 갑상선 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삶과 여행의 불안에 관하여

최명진 차장
예산회계팀



빛바랜 간판이 눈에 들어온 건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차를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다시 방향을 잡고 돌담 위로 살짝 내비친 간판을 따라 바닷가로 난 좁은 길로 얼마간 차를 더 몰았다. 적당한 공간에 차를 세우고는 잠시 앉은 채로 시간을 보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야 차에서 내렸다. 창고로 알고 지나치려던 식당은 슬레이트 지붕의 허름한 건물이었다. 지붕 옆엔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엷혀 있다고 해도 틀린 것 같진 않지만) 있었고, 이따금 바람에 흔들렸다. 일정한 궤도를 그리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 불안했지만 나는 낡은 간판에서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다.

식당 미닫이문에 눈을 바짝 붙여 움직임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어두운 내부보다는 넓은 평상으로 된 외부 공간이 눈에 띄었다. 아직 점심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라 잡담을 나누던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렸다. 한 아주머니가 얼굴만 뒤로 한 채 밖에 나가 앉아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식당 내부에서 다시 외부 공간으로 난 문을 열고 나가 평상에 자리를 잡았다. 평상 위로는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바랜 천막이 적당히 늘어져 걸려 있었다. 천막을 지지하는 철제 기둥은 바닷바람에 삭아 툭하고 치면 그만 내려앉을 것 같았다.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수저는 위생이 못 미더웠지만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선글라스를 벗자 바위에 부서지는 작은 파도가 너무 선명해 눈을 찡그렸다. 선명함이 주는 청량감이 팽팽했던 신경줄을 느슨하게 풀어놓자 맥이 탁 풀렸다. 오른쪽 무릎엔 별이 살짝 걸렸을 뿐이었지만 돋보기 초점에 맞은 듯 따가웠다. 나는 그늘막 아래 멍하니 앉아 별에 내어놓은 다리에 느껴지는 나른함과 통증 사이의 묘한 감각을 즐겼다. 잔물결이 쉼 없이 쏟아내는 날카로운 빛들이 아니었다면 먼 바다는 물결무늬를 품은 채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여유가 불안의 흔적을 지워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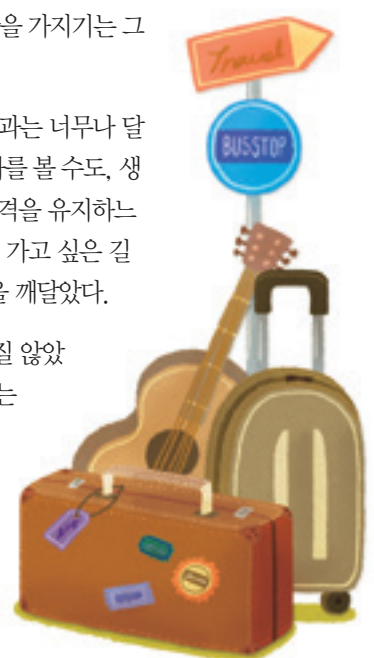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식당에도 손님이 한둘씩 들어섰다. 옆 자리에는 주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듯한 인부 셋이 앉았다. 인부들의 험글거리는 시선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즈음 나는 앞에 놓인 한치 물회 한 그릇을 허겁지겁 해치우고 계산을 치렀다.

다시 차에 앉아 한참을 더 바다를 바라보다 지도를 폈다. 딱히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제주를 올레길을 위해 찾았다. 아직 올레길이 만들어지는 중이었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만이였다. 그러나 유명세를 타고난 뒤의 올레길은 달랐다. 나에게서는 다른 공간이 필요했다.

차를 빌린 건 중산간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차를 타고 달리는 길은 내가 걷던 길과는 너무나 달랐다(그 동안 면허가 없었다).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뻗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산록도로 위의 나는 무언가를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저 굽어진 길을 따라 운전대를 돌리고, 뒤 따라 오는 차와 앞선 차 사이에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느라 우거진 숲길을, 펼쳐진 목장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잠깐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긴 했지만 차를 두고 가고 싶은 길로 멀리 들어설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제야 자동차라는 것이 두 지점을 빠르게 이어주는 목적 지향적 수단임을 깨달았다.

생각해 보니 첫날의 해안도로도 그랬다. 조금 돌아 해안도로를 달리려던 생각은 내비게이션이 가만두질 않았다. 내비게이션은 해안도로에서 드넓은 간선도로 위로 나를 자꾸 끌어내려했고 최단 경로를 재탐색하겠다는 경고를 신경질적으로 뱉어냈다. 애써 외면했지만 재탐색이라는 단어는 내면에 자리한 불안을 정확히 자극했다. 가야할 목적지에서 멀어져 있다는 불안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불안과 뒤엉켜 신경줄을 조금씩 조여 왔다.

나는 지도를 덮고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하루 일찍 차를 반납했다. 그리고는 여행의 불안이 출근시간 만원 버스를 타기 전 밀려오는 삶의 불안보다는 괜찮지 않았냐고 나를 위로했다.



알고 보니 비타민 같은 일

김승아
수시교육팀



‘교육(敎育) : [명사]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

내가 강사로서 첫 교육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교육’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1초도 안되어 검색된 ‘교육’의 뜻이 생각보다 꽤나 심오했다.

그런데 갑자기 입안이 말랐다. 입술도 마르는 것 같았다.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누구든 타인 앞에 서서 교육을 한다는 일은 익숙하지 않은 일일 테다. 우리는 대부분 교육을 받는 학생, 또는 수강생으로서의 경험이 강사로서의 경험보다 많지 않던가?

일정으로 잡힌 초등학교 교육을 앞두고 PPT 점검만 수십 번, 시연만 두세 번... 까짓 초등학교 교육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는 이도 있겠지만, 내겐 엄연히 언론중재위원회 강사로서의 첫 교육이었기에 의미가 남달랐다. 그렇게 지난 늦여름, 나는 웬지 모를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고양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컵스카우트 대원들을 상대로 첫 교육을 했다. 예전에 또래 학생들을 잠깐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일까?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의 떨림이라든지 입술이 바짝 마르는 등의 증상은 다행히 없었다. 교육을 마친 내게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어떻게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하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질문하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 중인 필자

두 번째 교육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권활동가, 정신장애자가족 등이 연대하여 조직한 정신장애연대(KAMI)라는 시민단체의 교육이었다. 이 날은 시민단체의 적극성을 예상했던 대로 내가 PPT의 맨 마지막 장을 넘기자마자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질문의 요지는 ‘정신장애연대가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에 대한 모든 잘못된 보도에 대해 그들을 대리해서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가?’로,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NO’였지만 연대측은 이에 대한 위원회의 구제방법에 대한 제시를 요청했다. 30분이 넘도록 질문과 토론이 계속되었다. 나는 이 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솔직한 시민단체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돈 주고도 못사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후 몇 차례의 교육을 거치고 11월 초, 천안의 한 대학교에 가게 되었다. 정신장애연대 강의를 들은 대학생이 다시 교육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교육 후, 또 다른 교육신청이라는 피드백이 올 때가 강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이 날은 오랜만에 싱그러운 대학 캠퍼스에 갔던 터라 정말 즐겁게, 그리고 자유로이 대학생들 앞에서 교육을 했던 것 같다. 늦은 시간의 지방 일정이자 집에 오니 저녁 11시 무렵이었지만...

반추해보면 교육 업무는 요즘 내 회사생활의 비타민일 정도로, 내 일상을 활기차고 즐겁게 해주는 한 가지가 되었다. 난 교육장에 가서 강의를 할 뿐이지만, 강의를 듣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내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듯하다. 비록 한 시간 반, 두 시간의 교육을 위해 열 배의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아직 교육 경험이 많진 않지만, 대상자가 상이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보니 눈높이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게 되었다. 통상 눈높이 교육이란 아이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아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교육을 요청하는 이유와 목적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맞춤형 눈높이 교육— 즉 교육 대상에 따른 사례, PPT의 순서, 하물며 교육자의 태도, 목소리의 억양, 아이 컨택까지 교육에 관한 모든 것들은 맞춤형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 나가보니 더욱더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다.

앞으로 몇 건의 교육 일정이 더 잡혀 있다. 비록 난 PPT를 고치고 또 고치고, 멘트를 수정하고 해야 할 테지만 소풍을 목전에 둔 아이처럼 아직은 설렌다.



COMMISSIONERS

‘2014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사회



김정숙 위원(대구중재부,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은 10월 31일 경주 우암미술관에서 열린 ‘2014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현대 여성, 선덕왕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왕인 선덕왕에 대한 역사토크, 공연, 전시, 학술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백두대간 이야기’로 한국가사문학상 대상 수상



김 종 위원(광주중재부, 전 광주문화재단 이사)은 11월 7일 전남 담양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열린 전국가사문학제에서 작품 ‘백두대간 이야기’로 제1회 한국가사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또 한 김 위원은 11월 17일 전남 나주 문예회관에서 심사위원장의 자격으로 이명한 원로작가에게 제1회 백호임제문학상을 시상했다.

‘2014 미디어산업포럼’에서 발제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1월 27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 ‘2014 미디어산업포럼’에서 “플랫폼-콘텐츠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변협,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회 열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경기중재부 중재위원)는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과 공동으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소식

NEWS

인터넷매체 관련 협회 대표 초청 간담회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11월 26일 인터넷매체 관련 협회 대표를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와 기자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협회 대표들은 신속 간편한 언론분쟁 해결방법인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언론보도 피해 예방·구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온라인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온라인편집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등 7개 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위원회 홍보 동영상 제작



위원회는 언론보도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동영상 ‘잃어버린 명예를 찾아서’를 최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동영상은 보도로 인한 피해 사례와 신청, 처리 절차 등을 재연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홍보 동영상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도 볼 수 있다.

지역중재부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11월 5일 충북을 시작으로, 제주(11월 7일), 부산(11월 10일), 경남·광주(11월 20일), 경기·전북·강원(11월 27일) 등 각 지역중재부별로 지역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 언론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매년 각 중재부별로 지역 언론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자 대상 교육

위원회는 11월 24일 인터넷신문 편집장 및 기자 등 15명을 대상으로 언론 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위원회의 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이 취재·편집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매체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설득 및 수사기법 월차보고서 12월호 발간



위원회는 12월 1일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12월호(제1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의 ‘삼국지를 통해 본 설득과 협상의 지혜-적벽대전(赤壁大戰)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와 황덕남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의 ‘왜 조정을 하는가’를 비롯하여 ‘문화의 유형과 갈등 해결전략’, ‘설득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논리적 오류와 극복방안’ 등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반론 취재가 부족했던 방송 기사, 옴부즈맨 프로그램 통해 반론 보도

A 방송사는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전하면서 신청인 아파트에서도 난방비가 0원인 가구가 33곳이나 되고, 이는 계량기 점검 권한이 있는 관리사무소가 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아파트 계량기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계량기 점검에도 이상이 없어 부당하게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A 언론사가 반론보도 방송 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했다. 이후 A 방송사는 자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를 방송했다.

| 초상권침해 사례 | 초상 사용에 동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정

B 신문사는 모 백신업체가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접종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했다. 신청인은 사진촬영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해당 백신업체 행사를 홍보를 담당한 업체는 신청인에게 촬영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촬영·보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신청인의 서명이 담긴 촬영·배포·판권소유에 관한 동의서를 중재부에 제출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의 초상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상 허용되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공표했다거나 신청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공표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장영란 _ 먼저 「언론  사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 책자를 접할 땐 원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에 나하고 별 상관없는 책이라 생각했는데, 우연히 책자를 넘겨보았는데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과 이해하기 쉽고 생활에 필요한 상식들, 꼭 알아야 할 알찬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오래 전부터 기다리며 꼭 챙겨보게 된 애독자가 됐습니다. 맨 앞 페이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언론피해구제 상담,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선거기사심의, ADR전문교육 그리고 언론피해예방 교육 등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게 돼 큰 공부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절기 건강하시고 「언론  사람」 모든 가족들의 행운과 행복을 바랍니다.

최남이 _ 11월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읽고 80대인 나에게 큰 공감을 주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연도나 나이라는 것이 사람이 제도적으로 만든 인위적인 숫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연령에 연연하지 말고 나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과 수준에 비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실질적인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며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현명한 삶이란 내 나이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현재 내 나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절대 과욕을 부리지 않으며 채식과 운동을 적절히 하여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황지환 _ 광화문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건물을 보기는 했으나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몰랐는데, 「언론  사람」 2페이지에 업무내용을 간략히 잘 표현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특히 선거기사 심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후기 '쿠오바디스, 인터넷'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부작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사과, 기사삭제 외에 블로그까지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검색엔진의 광고, 링크와 관련된 사항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취급분야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고도화된 만큼 일반시민의 관심도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민첩한 대응 기대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는 학생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하고,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체험을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 언론분쟁 사례 소개
- ADR 제도에 대한 이해 및 ADR 체험
-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 위원회 심리실, 언론사 등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 겨울방학 기간
- 시간 : 3~4시간
- 장소 : 위원회 강의실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 참조
edu.pac.or.kr
- 문의 : 수시교육팀 (02-397-3062~3064)

※ 프로그램 내용은 선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일 시 | 2014. 12. 4.(목) 14:30~17:00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진행 순서

14:30~14:3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35~14:40

위원장 인사말

14:40~15:30

주제발표

사회 : 양승목 (서울 제6중재부 위원)

발제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15:40~16:30

패널토론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

16:30~17:00

종합토론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

Tel 02)397-3022 E-mail jbgazz@pac.or.kr